

#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정책토론회

### 남원시, 서울대서 진정한 지방시대 시작·지역소멸 극복 위해 의지 다져

남원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펼쳐진 정책토론회에 이어 한국지역개발학회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주관한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3학생활관에서 개최되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결의와 뜨거운 열망이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현재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에 영호남에 이어 수도권 국회의원 등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유치 지지로 힘을 실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지방시대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극복 관점에서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야 하는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이 '경찰의 새로운 도약! 제2중앙경찰학교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패널 토론회에서는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송재영 교수와, 대전세종연구원 김홍주 책임연구위원, 경남대 경찰학교 김도우 교수가 참석하여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신입 경찰 교육생들의 교육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3학생활관에서 개최됐다.

이와 관련, 송재영 교수는 전국 경찰행정학과 98개교 중 경상권 33개교, 전라권 19개교, 약 절반 이상 학교의 학생들에게 기회균등 부여 및 교육 당사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영호남 중심지인 남원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도우 교수는 전국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총청권 14개(대전 2, 세종2, 충북 3, 충남 7), 수도권 9개(서울 5, 경기 3, 인천 1), 경상권 3개(대구/경북 2, 부산/경남 1), 전라권 3개(전북 1, 전남 2), 제주 2개,

총 31개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약 74%가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시대의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남원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철 남원시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미래 경찰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이라며 "남원시는 앞으로도 영호남권 지역소멸 극복을 위하여 경찰 인재 양성의 최적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청운~지천리 간선임도 개통

### 임실군, 교통 단절 주민 불편 해소 등 기대

임실군 운암면 청운리(거둔마을)에서 지천리(지천마을)를 잇는 3.43km 임도가 3개년에 걸친 공사 끝에 올해 11월 중순에 개통됐다.

운암면 용운리 산84~운암면 지천리 산107 일원의 구간에 총사업비 1,212백만원을 투입하여 진행됐다.

1960년대 삼진강댐 준공 이후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운암면 거둔마을과 지천마을 주민은 인접한 지역이지만 28k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하거나 소형 나룻배에 의존하여 왕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임도의 개통은 옥정호 주변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서 삼진강 자전거길 동호인뿐만 아니라, 나대산 등산로와 연계하여 가벼운 산행을 즐길 수 있어 트레킹족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진면 문방리(수방마을)에서

옥정리(옥정마을)를 잇는 기존 임도에서 1.03km 임도를 착공,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임실군의 산림 경영 기반 조성하고 함께 옥정호 둘레길로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임도사업에 32억원을 투입하여 산불진화임도 1.5km, 간선임도 7km, 작업임도 3km, 임도 구조개량 8km, 임도 보수 20km 등을 시설했다. 3월에 착공하여 오는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불 진화 등 위기 상황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삼진강댐 준공 이후 현재까지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 단절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이영철 신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임명

남원시는 지난 22일 시장실에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책임질 신임 원장으로 이영철 박사를 임명했다.

이영철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삼진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겸 (재)목포수산물품질안전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연구와 사업화, 제품개발 등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3년간의 연구원장 임기를 수행하며,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연계사업 발굴과 기관 제원화를 위한 자체 수익 창출 증대 방안,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단기 성과 도출 가능 항목



우선 추진, 중장기 혁신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바이오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 지식과 관리자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남원 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제17기 농업인대학 수료식 열려

임실군이 올해 3월부터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운영한 농업인대학의 전 교육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수료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올해 임실군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에 개강해 11월까지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한우(20명)와 발효식품(21명) 과정을 편성했다.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등 총 17회 7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임실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45명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데 기여



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024년 임실군 농업인대학 교육 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은 교육생에게 공로상(2명)과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 학업 우수상(2명)도 수여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환경개선 공사 따른 임시진료공간 운영

남원시보건소가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와 일상 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38억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면 환경개선(중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중축 사업은 2023년에 놓여온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를 신청해 중축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전체 면적 723.73㎡(219평) 지상 2~3층 수직중축으로 승강기 신설, 1층 진료실, 예방접종실,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 등 확장 배치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부터는 1층 민원부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주 사업실(민원실, 예방접종실, 진료실 등)을 보건소 옆 시 평생학습관(요천로 1283) 1층 강당에서 운영하고, 중환자 이용센터(송정리길 3길 12)를 대체로 재활치료 이용자 프로그램인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기존의 진료 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신규공무원 소양교육 진행

순창군이 지난 21일과 22일 1박 2일간 인제면 쉼랜드에서 신규공무원 소양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임용 및 실무수습 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현장 팀장들이 강사로 나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했다. 첫날 회계실무부터 공문서 작성법, 인사 조직실무, 공무원 복지 등 업무 전반 실무 능력 함양에 집중했다.

현직 팀장들이 실무 노하우, 실천 업무 팁 등을 전수하면서 신규 공무원들 또한 강의를 듣는 내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첫날 특강자로 최영일 순창군수가 나서 눈길을 끌었으며, 관내 주요 사업지구와 관광지 순회한 이튿날에는 발효테마파크, 강천산, 힐링스파 등을 방문하며 다채로운 힐링체험이 이어졌다. /순창=이영원 기자

# '농촌사랑 동행순창'으로 지역 상생 발전 도모

## 순창군-전남과학대, 협약 체결

순창군과 전남과학대학교가 도농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순창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와 이은철 전남과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전남과학대학교 교직원과 산학협력단이 순창군과 긴밀한 교류를 갖고, 다양한 연구 및 워크숍, 순창 투어 등을 통해 도농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를 토대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번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계기로 순창군과 전남과학대학교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전남과학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이 도농 교류 활성화와 함께 인구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순창군과 전남과학대학교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